

미군정기 초등 음악 교과서 『초등 노래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ementary Music Textbook *Ch'odŭng Noraech'aek* in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김은주* · 최윤실**

Eunju Kim · Yunsil Choi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 초등 음악교육에 활용된 『초등 노래책』의 특징과 수록곡을 분석해 봄으로써 당시 음악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초등 노래책』의 특징과 악곡 현황, 제재곡의 주제,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미군정기 음악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초등 노래책』은 학년별로 20곡 정도의 악곡으로 구성되었고 주제는 ‘주변 세계에 대한 관찰’, ‘나라 사랑의 마음’, ‘어린이로서의 생활’, ‘주변의 인물’을 포함하였다. 음악 유형은 모두 서양음악 어법에 따른 창작동요로 구성되었고, 음악 요소는 박자, 조성, 악곡 길이, 음역, 연주 형태 등을 제한적이고 단순한 경향 속에서 학년 별 위계를 두고 제시되었다.

주제어: 미군정기, 음악교육, 교육과정, 초등 음악 교과서, 초등 노래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 scope and level of music education at the tim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songs included in the *Ch'odŭng Noraech'aek* used for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during in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To this end, the music education curriculum during this period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repertoire, theme,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ongs in the *Ch'odŭng Noraech'aek*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music curriculum of this period did not provide specific learning contents. Second, *Ch'odŭng Noraech'aek* consists of about 20 songs for each grade level and includes themes of ‘Observation of the world around students’, ‘Patriotism for the country’, ‘life as a child’, and ‘people around students’. In addition, all music types were children’s songs composed according to the western music composition method, and the musical elements such as time, length of the song, musical range, and performance types were limited and simple, presented in a hierarchical order by grade.

Key word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music education,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Ch'odŭng Noraech'aek*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ileej1985@naver.com

Instructor,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hak-ro 50, Wansan-gu, Jeonbuk, Korea

** Co-author, E-mail: holy2010@naver.com

Instructor,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I. 서론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교육부는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오는 2022년 하반기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되고 고시될 예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틀을 갖추게 되기까지 불과 80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의 변화와 발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등 민족 수난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로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육 체계가 갖춰진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수립, 한국전쟁 종료 이후 사회 안정 및 재건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의 시기의 교육 상황 또한 역사·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군 주둔의 남쪽과 소련군 주둔의 북쪽으로 나뉘었으며, 이로 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기까지 약 3년간 남한은 주한 미군에 의한 군정, 소위 미군정이 이루어졌다. 교육 또한 미군정청의 주도로 교사 재훈련, 교육과정 편제, 교과서 준비, 학교 개교 등 학교 교육 재개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Lee, 1985). 이 시기의 교육은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비로소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그동안 미군정기의 음악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우선 해방 직후 미군정 하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음악교육의 실상에 관해 미군정의 음악교육 정책과 그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핀 연구(Moon, 2014), 해방 이후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의 열망 속에서 미군정의 문화 정책 배경에서의 전통음악의 현황을 다룬 연구(Song, 2019)뿐 아니라, 1945년 이후 한국 음악 교육의 변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살펴본 연구(Kim, 2011)를 통해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악교육이 짧은 기간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시도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편,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연구들(Kim, 2001; Kim, 2002; Shin, 2004; 2005; Kwon, 2014; 2016; Choi, 2014; Zhang, 2021)은 당시의 교육과정 문서와 학생들이 사용했던 교과서를 분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 음악교육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일부 연구(Kim, 2002; Choi, 2014)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나 군정청 문교부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었기에, 국가 수준 음악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교과서에 담겨 있는 음악 내용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미군정기 시기의 교과서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연구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정기 음악교육 상황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사료로서 당시의 교과서 확보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해방 이후를 현대사로 특화시켜 보았을 때, 미군정기에 나타나는 ‘근대’의 양상이 이전의 시대 상황과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며 구체화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Lee, 2000)는 점에서 이 시기의 연구는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의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군정기의 음악 교과서 중 군정청 문교부에 의해 국정 교과서로 편찬된 교과서인 『초등 노래책』을 분석해 봄으로써, 교육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에서 이루어진 초등학교 음악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교육적 조치와 음악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문헌을 살펴본다. 둘째, 미군정기 초등학교 수업에서 활용된 음악 교과서인 『초등 노래책』을 수집하고¹⁾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해 본다. 셋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미군정기의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 다룬 미군정기의 음악교육에 관한 내용은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1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연결 고리로 볼 수 있어, 역사·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내용이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미군정기의 정의와 구분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미군정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대한 구분과 명칭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1) 본 연구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한 『초등 노래책』 교과서는 국립한글박물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 소장된 자료로, 학술 연구 및 논문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 모두 개별적으로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시기는 1945년 8월 15일이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는 약 3년의 공백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방공간(解放空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Kwon, 2014), 한반도의 북위 38°를 경계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통치했다고 하여 ‘미소군정기(美蘇軍政期)’라고 부르기도 한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2.1.). 교육학에서는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미군정기’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조금씩 다른 구분도 존재한다. 유봉호(Yoo, 1992)는 이 시기를 ‘과도기(1945.8~1946.8)’와 ‘교수요목기(1946.9~1954.5)’로 본다. 신계휴(Shin, 2004)는 미군정기(1945~1948)를 임시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표가 발표된 ‘해방 후 과도기(1945.8.15~1946.9)’와 다시 수정된 교과목 편제와 시간표가 발표된 후 교수 요목을 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한 시기로 나누어 ‘교수요목시기(1946.9~1953)’로 구분하였다. 한편, 김초이(Kim, 2011)는 해방 이후 3년간 미국의 군정이 이루어진 시기로서의 ‘미군정기(1945~1948)’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부터 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를 ‘교수요목기(1948~1955)’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최초의 학교 음악 교육이 이루어진 시점인 1945년부터 1948까지 3년간의 시기를 ‘미군정기’로 구분하고, 이 시기의 교육과정과 발간되어 활용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군정기의 교육과정과 음악교육

해방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 음악교육은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였으며, 일본식 제도, 일본인 교사에 의한 일본 창가 교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식민지 치하 교육 환경의 한계 속에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은 불가능하였으며 음악 전문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Lee, Kim & Min, 2002, p.257).

해방 이후인 194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까지 3년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정 실시를 위해 미 군정청(軍政廳)을 설치하였으나, 당시의 군정청 학무국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한국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였다(Kwon, 2014). 이들은 일제 하의 식민 교육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정립하고 학제 개혁,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Shin, 2004). 이를 위하여 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9월 18일 ‘신교육 방침 각도에 지시’를 발표하였는데(Maeilsinbo, 1945a),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재개 : 전 조선의 초등학교는 9월 24일 개교하며, 만 6세~12세의 학령 아동은 즉시 등록할 것,

- 사립학교 : 학부 당국의 인가를 얻어 즉시 개교할 수 있음.
- 민족과 종교 : 학교 교육에서 민족과 종교의 차별을 철폐함. 학교조합 학교는 전부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함.
- 교원 용어 : 조선국어로 함. 조선국어로 된 적당한 교재 준비 시까지 외국어(일본어)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음.
- 교과목 :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를 금함.
- 교직원 : 전 조선의 조선인 초등 교원은 즉시 군학무당국에 등록을 완료한 다음 24일부터 수업 개시를 위해 대기할 것.

이어서 1945년 9월 22일에는 ‘당면한 교육방침 결정’을 발표하였다(Maeilsinbo, 1945b). 여기에서는 신조선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요지로서 ‘일반 방침’과 ‘교육상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제 잔재의 불식’, ‘평화와 질서’,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 기능의 연마’이다(Yoo, 1992). 학년별 수업 시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 and course organization in elementary school (Maeilsinbo, 1945b)

Grade	Subject						Total hours
	Civics	Korean language	Korean history & geography	Arithmetic	Science	Music & physical training	
1~3	2	8	1	5	1	3	20
4	2	7	1	4	3	3	20
5~6	2	6	1	4	3	3	18

<Table 1>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별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명칭과 각 교과의 주당 시수 배당 현황을 알 수 있다. 음악 교과의 경우 독립 교과가 아닌 음악·체육의 결합 형태로 전 학년에서 주당 3시간의 시수(1주일에 6일 수업)가 배당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 편제와 시수 배당이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²⁾. 이윽고 1945년 9월 29일에는 법령 제6호로 ‘교육의 조치’가 다음 [Figure 1]³⁾과 같이 공포되었다.

2) 1945년 9월 18일에 발표된 ‘당면한 교육방침 결정’에는 학과 과목과 시간 수효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아직 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2부 교수가 이루어질 것이며 교수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18시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5~6학년만 주당 시수 총합이 18시간으로, 나머지 학년이 주당 시수가 총 20시간으로 제시된 까닭이나 시수 운영 방식에 관한 정확한 사항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예술 관련 교과로서 ‘미술’이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교의 교과 편제를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고 한다(Kwon, 2014).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Seoul, Korea	
ORDINANCE NUMBER 6	29 September 1945
General Order Number 4 is superseded and amended to read:	
SECTION REOPENING OF PUBLIC SCHOOLS..... I PRIVATE SCHOOLS..... II RACE AND RELIGION..... III LANGUAGE OF INSTRUCTION..... IV CURRICULUM..... V TEACHERS..... VI SCHOOL BUILDINGS..... VII	
SECTION I REOPENING OF PUBLIC SCHOOLS The public primary schools of Korea will reopen on Monday, 24 September 1945. All Korea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six and twelve will register. The reopening of other public schools will be ordered in later directives.	
SECTION II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s may reopen when they have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Bureau of Education.	
SECTION III RACE AND RELIGION There will be no raci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in the schools of Korea.	
SECTION IV LANGUAGE OF INSTRUCTION The language of instruction in the schools of Korea will be Korean language. Until adequate materials are available in the Korean language, foreign languages may be used.	
SECTION V CURRICULUM No subject will be taught or practice observed that is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Korea.	
SECTION VI TEACHERS All Korean primary school teachers will register immediately at the nearest educational office and hold themselves ready to begin work on Monday, 24 September 1945. All other Korean teachers will register at the nearest educational office between 24 September and 29 September 1945.	
SECTION VII SCHOOL BUILDINGS All school buildings now used for other than educational purposes, except those occupied by United States Army Forces, will be vacated at once, cleaned, and left in good condition for use as schools.	
BY DIRECTION OF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 V. ARNOLD Major General,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or of Korea.	

[Figure 1] Ordinance Number 6 (1945.9.29.) (Source: <http://db.history.go.kr>, 2022.2.1.)

‘교육의 조치’에서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V장에 나타나 있는데,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만 간략히 나와 있을 뿐 가르쳐야 할 교과목이나 내용, 시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에 관해서도 자세한 교육 내용이나 지침을 알 수는 없었다.

1945년 10월 21일에는 학무통첩 제352호, ‘학교에 대한 설명과 지시’가 공포되었으며(Ministry of Education & KICE, 2022.2.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한 학교에 대한 정책은 변경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존 체제 내에서 학교 운영
- 교육에 관한 권한과 지위의 구분과 설명(Chokunin, Sonin, Hanin)
- 교육국, 도교육청, 시교육청의 역할
- 공립 중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가능한 빨리 등교할 것
- 기존 사립학교의 재개에 관한 내용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
- 교원 양성 학교 교육과정의 조정

3) 원본 문서의 가독성이 낮아 동일 내용 및 구조로 문서를 재작성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 각 교육청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목록
- 공립 고등학교의 예산 지원, 공립 학교의 등록금 및 기타 비용의 징수
-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 준비에 관한 안내
- 학교 문제의 해결과 개선에 관한 군 관료들의 역할, 교육국 문의 방법 등

이중 공립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Curriculum for public primary schools (Explanation of and direction onsSchools, 21 October 1945)

Years courses	1st	2nd	3rd	4th	5th	6th	Text
Civics	2	2	2	2	2	2	In preparation
Korean language	8	8	8	7	6	6	In preparation
Korean history					2	2	In preparation
Geography				1	2	2	None
Arithmetic	6	6	7	5	5	5	Old (Teacher only)
Science				3	3	3	
Physical training	4	4	5	3	3	3	None
Music				2	2	2	
Writing			1	1	1	1	None
Household arts and sewing				3/Girls	3/Girls	3/Girls	None
Drawing and handicraft	2	2	2	3/Boys	4/Boys	4/Boys	None
				2/Girls	3/Girls	3/Girls	None
Vocational training				3/Boys 1/Girls	3/Boys 1/Girls	3/Boys 1/Girls	None
Total hours	22	22	25	30	33	33	

‘학교에 대한 설명과 지시’에 제시된 공립 초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학년별 시수 배당을 살펴보면, 불과 한 달여 전 발표된 ‘당면한 교육방침 결정’에 나타난 내용보다 교과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학년별(일부 교과목은 남학생과 여학생 구분) 시수도 세분화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이중 ‘음악’ 교과목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면,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체육과와 통합하여 주당 4~5시간이 편성되었던 것이 초등학교 4~6학년에서는 별도의 시수로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다만, 교과서는 마련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음악이 담긴 교과서가 전무하였으므로, 해방 이후 학교에서 활용할 새로운 음악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군정기의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구분과 명칭, 학년별 주당 교육 시수 등 매우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만이 만들어졌을 뿐,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의 제시는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교과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의 문을 열었기에,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을 것이다. 특히 음악 교과의 경우 종래 일제 치하에서의 음악 교육이 일본 창가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노래가 수록된 음악 교과서의 부재 속에서 체계적인 학교 음악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3. 미군정기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미군정기 학교 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학교 문을 열어야 했기에 체계적인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특히 가장 긴급한 것 중 하나는 초등학교의 교과서 마련 문제였으므로, 1946년 초 편수과에서는 각 전문 분야의 학자 32명을 통해 교과서 편찬 준비를 하였다(Oh, 1964).

미군정기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국정(國定)으로, 중학교 교과서는 검정(檢定)으로 편찬되었다(Lee, Kim & Min, 2002). 당시에 편찬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현황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각 연구자별로 수집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항을 보이고 있었다(Kim, 2001; Kim, 2002; Shin, 2004; Kwon, 2014).

이에, 선행연구자들이 정리한 미군정기 당시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목록에 본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실제 수집한 교과서 자료의 정보를 추가하여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3>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Textbook	Author	Year of issue	Data
1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chool Music) Grades 1-6	Department of Education, USAMGIK	1945	Unable to confirm
2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ongbook) Grades 1-2	Department of Education, USAMGIK	1946	confirmed
3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ongbook) Grades 3-4			
4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ongbook) Grades 5-6			
5	<i>(Imsi) Eumak</i> (Temporary Songbook) Grades 1-2	Department of Education, USAMGIK	1948	Unable to confirm
6	<i>(Imsi) Eumak</i> (Temporary Songbook) Grades 3-4			
7	<i>(Imsi) Eumak</i> (Temporary Songbook) Grades 5-6			
8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chool Music) for 1st graders	Department of Education	1948	confirmed
9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chool Music) for 2nd graders			
10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chool Music) for 3rd graders			
11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chool Music) for 4th graders			
12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chool Music) for 5th graders			
13	<i>Ch'odŭng Noraech'aek</i> (Elementary School Music) for 6th graders			

<Table 3>의 음악 교과서 중 미군정기에 당시 최초로 만들어진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미군정청 문교부에 의해 1945년 12월 20일자로 만들어진 ‘음악 1~6학년용’이다⁴⁾. 이어서 1946년에는 『초등 노래책』이 학년군별(1~2학년, 3~4학년, 5~6학년)로 발간되었다. 1948년에 임시로 사용하던 『음악』 교과서가 학년군별로 1권씩 3권 있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자료의 부재로 확인이 어려웠으며, 학교에서 활용한 공식적인 교과서는 군정청 문교부에 의하여 학년별(1~6학년 각 별책)로 발간된 『초등 노래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그러나 이 교과서는 오천석(Oh, 1964)에 의해 탈고되었다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 당시의 교과서 자료를 구할 수 없기에 확인이 어려우며, 관련 내용을 다룬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초등 노래책』은 미군정기 당시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파악하는 동시에 근·현대의 과도기 속에서의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육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Ⅲ. 미군정기의 초등 음악 교과서 『초등 노래책』 분석

『초등 노래책』은 해방 후 처음 간행된 음악 교과서인 동시에,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음악 교과서라는 데 의미가 있다(Lee, Kim & Min, 2002). 3년여에 불과한 미군정기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초등 노래책』은 1945년, 1946년, 1948년 3회에 걸쳐 발간되며 초등학교 음악교육을 위한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소장하고 있는 교과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할 교과서 목록은 아래와 같이 1946년 발간본 2권과 1948년 발간본 5권으로, 총 7권이다.

- 『초등 노래책(제삼학년 소용)』 (1946.8.3. 군정청 문교부 발간본)
- 『초등 노래책(제오륙학년 소용)』 (1946.8.3. 군정청 문교부 발간본)
- 『초등 노래책(1학년 소용)』 (1948.4.27. 문교부 발간본)
- 『초등 노래책(2학년 소용)』 (1948.4.27. 문교부 발간본)
- 『초등 노래책(3학년 소용)』 (1948.4.27. 문교부 발간본)
- 『초등 노래책(4학년 소용)』 (1948.4.27. 문교부 발간본)
- 『초등 노래책(5학년 소용)』 (1948.4.27. 문교부 발간본)

1. 분석 방법과 내용

이 연구에서 수행할 교과서 분석 방법과 내용은 첫째, 각 교과서의 특징과 수록된 악곡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당시의 학교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진 제재곡의 범위와 학년별 분량, 수준 등이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인 제재곡의 주제와 음악 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미군정기 당시에 이루어진 학교 음악교육의 내용과 제시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초등 노래책』 교과서의 특징과 수록곡 현황

『초등 노래책』은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즉 음악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로서, ‘노래책’이라는 이름에 맞게 수록된 모든 악곡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음악 교과서처럼 노래 부르기 이외의 악기 연주, 음악 감상, 음악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는 일제강점 시기 학교 음악교육이 ‘창가’를 부르는 교육에 편중되어 있었던 현실, 해방 이후 우리 말 악곡의 발굴과 보급에 대한 필요 등의 이유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교과서의 기본 구성은 ‘표지-목차-악보-발간 정보-뒷표지’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1948년에 발간된 교과서는 1946년 발간된 교과서와 다르게 2개 학년군이 아닌 개별 학년을 위한 교과서가 제시된 점, ‘애국가’가 제재곡에 앞서 첫 곡으로 제시가 된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표지와 악곡 목차 사이에 [Figure 2]와 같이 교과서의 1쪽을 할애하여 악기 소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Figure 2] Introduction of instruments in textbook
(Source: *Ch'odŭng Noraech'aek* for 1st graders, 1948.4.27.)

그러나 이는 서양 악기의 모습과 명칭을 몇 가지 나열한 것으로, 교과서 본문에는 별도의 학습 활동이 안내되어 있지 않고 노래 악보만 제시되어 있어 내용의 연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어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각각의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수록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등 노래책(제삼사학년 소용)』 수록곡

총 35쪽으로 이루어진 『초등 노래책(제삼사학년 소용)』(1946.8.3. 군정청 문교부 발간본)에는 19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 | | |
|-------------|---------------|----------|
| 1. 조선의 아들 딸 | 2. 봄 | 3. 진달래 |
| 4. 나비 | 5. 봄스비 | 6. 시계포 |
| 7. 소곰쟁이 | 8. 무지개 | 9. 그림자 |
| 10. 이순신 장군 | 11. 눈 · 꽃 · 새 | 12. 백두산 |
| 13. 오빠생각 | 14. 저녁의 바다 | 15. 줄 넘기 |
| 16. 급행열차 | 17. 피리 소리 | 18. 기러기 |
| 19. 어깨동무 | | |

2) 『초등 노래책(제오륙학년 소용)』 수록곡

총 35쪽으로 이루어진 『초등 노래책(제오륙학년 소용)』(1946.8.3. 군정청 문교부 발간본)에는 18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 | | |
|-------------|------------|---------------|
| 1. 독립만세 | 2. 고향의 봄 | 3. 봄스바람 |
| 4. 빨래 | 5. 메아리 | 6. 부모의 은덕 |
| 7. 낮에 나온 반달 | 8. 방아 | 9. 반달 |
| 10. 물스새 | 11. 새 봄 | 12. 고향 하늘 |
| 13. 자장가 | 14. 들노리 | 15. 비 · 눈 |
| 16. 삼월 삼짇날 | 17. 그리운 강남 | 18. 조선 아기의 노래 |

3) 『초등 노래책(1학년 소용)』 수록곡

총 32쪽으로 이루어진 『초등 노래책(1학년 소용)』(1948.4.27. 문교부 발간본)에는 애국가를 제외하고 2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 | | |
|--------------|--------------|------------|
| 애국가 | 1. 새 나라의 어린이 | 2. 학교 |
| 3. 산토끼 | 4. 강아지 | 5. 조선의 별 |
| 6. 무엇 배우나 | 7. 눈 오신 아침 | 8. 줄 넘기 |
| 9. 뱅글 뱅글 돌아라 | 10. 참새 | 11. 고양이 |
| 12. 기차 놀이 | 13. 얼룩 송아지 | 14. 나는 알아요 |
| 15. 애기 별 | 16. 바위와 샘물 | 17. 봄 바람 |
| 18. 비누 방울 | 19. 병아리 | 20. 어린 음악대 |

4) 『초등 노래책(2학년 소용)』 수록곡

총 39쪽으로 이루어진 『초등 노래책(2학년 소용)』(1948.4.27. 문교부 발간본)에는 애국가를 제외하고 2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애국가	1. 어린이 행진곡	2. 피어라
3. 똑딱배	4. 들노리	5. 인사 노래
6. 꽃 잎	7. 눈	8. 설날
9. 물방아	10. 무지개	11. 봄
12. 꿀벌	13. 봄맞이 가자	14. 동무들아
15. 고기 잡기	16. 감꽃	17. 호박꽃 초롱
18. 춤추자	19. 물결은 출렁 출렁	20. 우리 나라 꽃

5) 『초등 노래책(3학년 소용)』 수록곡

총 40쪽으로 이루어진 『초등 노래책(3학년 소용)』(1948.4.27. 문교부 발간본)에는 애국가를 제외하고 2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애국가	1. 독립 만세	2. 개미
3. 가을	4. 달 마중	5. 자장가
6. 방울새	7. 작은 별	8. 눈 사람
9. 오너라 새들아	10. 손 잡고 가자	11. 보슬비의 속사김
12. 봄 들	13. 봄	14. 망아지
15. 바다 가에서	16. 글실비 · 은실비	17. 메아리
18. 노를 저어라	19. 종이 운다	20. 옥수수 나무

6) 『초등 노래책(4학년 소용)』 수록곡

총 22쪽으로 이루어진 『초등 노래책(4학년 소용)』(1948.4.27. 문교부 발간본)에는 애국가를 제외하고 2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애국가	1. 백두산	2. 다람 다람 다람쥐
3. 기러기 훨훨	4. 추석	5. 자장가
6. 기러기	7. 스케팅	8. 눈 꽃송이
9. 꼭 꼭 숨어라	10. 그리운 옛집	11. 봄 노래
12. 빠꾸기	13. 아롱다롱 나비야	14. 참새
15. 시계	16. 행군	17. 고향 하늘
18. 풍당 풍당	19. 노를 저어라	20. 어린이 행진곡

7) 『초등 노래책(5학년 소용)』 수록곡

총 21쪽으로 이루어진 『초등 노래책(5학년 소용)』(1948.4.27. 문교부 발간본)에는 애국가를 제외하고 2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곡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애국가	1. 뜻	2. 다람쥐
3. 한글 날	4. 가을 바람이라지	5. 음계
6. 바람	7. 참새	8. 토끼 방아 찢는 노래
9. 어린이 노래	10. 낮에 나온 반달	11. 봄 바람
12. 봄이 왔어요	13. 뼈꾸기	14. 꽃
15. 배 사공	16. 비 방울	17. 고개
18. 목수	19. 연잎 배	20. 산 바람 강 바람

3. 『초등 노래책』 교과서 수록곡(제재곡)의 양상 분석

여기서는 미군정기의 초등 음악 교과서로서 『초등 노래책』에 수록된 악곡을 음악 수업을 위한 ‘제재곡’으로 보고, 음악 교육의 관점에서 제재곡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할 악곡은 1948년 편찬본의 모든 책에 제시된 ‘애국가’, 책 해당 페이지가 찢겨 목차 외에 교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악곡⁵⁾을 제외하고 중복을 포함하여 총 134곡이다.

우선, 제재곡이 포함하고 있는 ‘주제’에 관해 분석한다. 악곡의 ‘주제’는 노래 제목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노랫말을 통해 나타나는 바, 노래 제목뿐만 아니라 노랫말이 표현하는 소재나 장면, 의미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미군정기 당시의 초등학교생들에게 학교 음악 교육에서 어떠한 주제의 악곡이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초등 노래책』이 학교 음악 교육을 위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악곡의 음악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악곡이 포함하는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초등학교 음악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수준의 음악 요소가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 제재곡의 주제 분석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 제재곡 총 134곡의 제목과 노랫말을 살펴본 결과, 자연,

5) 1948년 편찬된 『초등 노래책(1학년 소용)』 중 ‘참새’, ‘고양이’, 『초등 노래책(3학년 소용)』 중 ‘옥수수나무’ 악곡이 이에 해당한다.

사물, 사람, 우리나라, 전통문화, 고향, 역사, 놀이, 학교생활,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악곡의 핵심 소재가 어떠한 주제를 나타내고자 하였는지 유목화하였을 때, ‘주변 세계에 대한 관찰’, ‘나라 사랑의 마음’, ‘어린이로서의 생활’, ‘주변의 인물’과 같이 크게 4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Table 4>는 주제에 따른 악곡의 주요 핵심 소재와 악곡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 Analysis of song themes in *Ch'odŭng Noraech'æk*

Theme	Core material of songs	Number of songs	Proportion
Observation of the world around students	Nature	72	63.4% (85 songs)
	Objects	11	
	People	2	
Patriotism for the country	Motherland	15	18.7% (25 songs)
	Traditional culture	4	
	Hometown	4	
	History of Korea	2	
Life as a child	Play life	11	10.4% (14 songs)
	School life	3	
People around students	Family	6	7.5% (10 songs)
	Friends	4	
Total			100%(134 songs)

『초등 노래책』 제재곡의 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변의 세계에 대한 관찰’이었다. 핵심 소재 중에서는, ‘자연’을 다룬 악곡이 72곡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 134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해당하였다. 이는 1920년대에 이루어진 어린이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위한 노래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존의 창작동요가 교과서에 악곡으로 수록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계절, 식물, 동물, 해, 달, 별 등의 자연물이나 현상을 다룬 노랫말이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친근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중 ‘낮에 나온 반달’은 1946년 『초등 노래책(제오륙학년 소용)』과 1948년 『초등 노래책(5학년 소용)』에 수록되었는데,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낮에 나온 반달>

1.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으ㄴ, 해-님이 쓰다버린, 쪽달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길러갈 때-, 치마 끝에 달랑달랑, 채워졌으ㄴ.

2.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으ㄴ, 해-님이 신다버린, 신작인가요-? 우리 애기 아
장아장, 걸음 배울 때, 한쪽 발에 딸깍딸깍, 신겨줬으며ㄴ.
3.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으ㄴ. 해-님이 빗다버린, 면빋인가요-? 우리 누나 방
아 쪼고 아픈 팔 쉴 때, 흘은 머리 곱게곱게 빗겨줬으며ㄴ.

이 곡은 윤석중 작사, 흥난파 작곡의 곡으로 『조선 동요 100곡집』(1930, 1933)에 실려 소개된 것으로, 일제강점 시기 어린이들의 민족정신과 정서와도 연관이 있는 악곡이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7·5조의 3음보의 운율에 ‘반달’, ‘해님’, ‘할머니’, ‘우리 애기’, ‘우리 누나’, ‘신작’, ‘빋’ 등의 친근한 소재를 담아, 대구와 반복, 의인법과 생략법, 의문문 등 다채로운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초등 노래책』의 제재곡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특징 중 눈에 띄었던 것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룬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이었다. 이 주제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 ‘고향’, ‘역사’를 소재로 한 악곡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다룬 악곡이 가장 많았다. 이 중 1948년에 편찬된 『초등 노래책(1학년 소용)』에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악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새 나라의 어린이>

1.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 나비니다. 잠꾸레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2. 새 나라의 어린이는 서로 서로 돕습니다.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3. 새 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하비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조선의 별>

1. 우리는 별, 조선의 별, 무궁화 동산ㄴ에 밤하늘 빛나는 우리는 별, 조선의 별.
2. 우리는 별, 조선의 별, 이 강산 꾸미어 새벽길 비추는 우리는 별, 조선의 별.
3. 우리는 별, 조선의 별, 똥똥똥 정다비게 똥똥똥 빛나는 우리는 별, 조선의 별.

노랫말을 살펴보면, 우선 두 악곡에서 우리나라는 ‘새 나라’, ‘우리나라’, ‘조선’, ‘무궁화 동산’ 등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새 나라의 어린이’, ‘별’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좋은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어린이를 향한 희망과 기대감이 어떤지 등을 직·간접적인 노랫말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초등 노래책』에 수록된 제재곡이 교과서 악곡으로서 지닌 고유의 음악교육적 기능 외에도 노래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훈적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놀이와 학교생활을 다룬 어린이로서의 생활, 학생들 주변의 인물로서 가족과 친구를 다룬 악곡 등이 교과서 제재곡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2)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 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초등 노래책』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로서 제시되어 있지만 교과서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관점의 음악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음악 만들기’의 다양한 활동이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교과서의 구조만을 살폈을 때는 그저 악곡명과 악보만이 나와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었다. 다만 이것이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활용되었다는 상황적 전제 하에, 제시된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가 이루어진 현재의 음악교육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다. 이에 분석 대상으로 삼은 134곡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 제재곡의 음악 유형 분석(서양음악, 국악)
- 제재곡의 기초적인 음악 요소의 분석(박자, 조성, 음역, 곡의 길이, 연주 형태 등)

제재곡의 음악 유형 분석을 통해서는 일제강점 시기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도입되었다는 점, 오랜 기간 우리 말과 글, 우리 음악 등의 문화적 측면의 억압이 이어져왔다는 점 등이 해방 이후 음악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제재곡의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초기 학교 음악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악곡에 포함된 음악 요소의 수준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초등 노래책』제재곡의 음악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악곡이 ‘창작동요’에 해당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포함된 악보는 모두 오선악보로 기보가 되어 있었다⁶⁾. 다만 [Figure 3]과 같이 전래동요와 유사한 형태의 가사를 서양 어법으로 만들어진 가락에 붙여 부르는 경우나, [Figure 4]와 같이 우리 민요와 유사한 가사와 가락을 가진 곡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는 매우 일부에 불과하였다.

6) 본 논문에 포함된 모든 교과서 악보는 원본 문서의 가독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악보를 새로 그려 제시하였다.

어깨동무

Eokkaedongmu



[Figure 3] Score of Eokkaedongmu

(Source: *Ch'odŭng Noraech'æk* for 3-4th graders, pp.34-35 1946.8.3.)

삼월 삼짇날

Sam-wol samjitnal



[Figure 4] Score of Samwol Samjitnal

(Source: *Ch'odŭng Noraech'æk* for 5-6th graders, pp.30-31 1946.8.3.)

이상의 음악 유형 분석을 통해서 해방 이후 만들어진 국정 음악 교과서인 『초등 노래책』 속에 전래동요, 민요 등 전통 악곡이 전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일제강점기에 겪은 우리 음악 문화 단절의 단면을 볼 수 있었으며, 학교 음악 수업에서 국악 교육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초등 노래책』의 제재곡이 포함하고 있는 기초 음악 요소에 관한 분석을 해 보았다.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은 오선악보 형태로 모두 서양 음악 어법을 따르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악곡명과 악보만 수록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악곡의 작사, 작곡가 등의 작가 정보와 노래 악곡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나 음악 교육적 활동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교과서에 제시된 악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음악 요소를 중심으로 수록곡의 박자, 조성, 악곡의 길이, 음역, 연주 형태 등의 경향을 살폈다.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초등 노래책』에 수록된 악곡의 음악 요소를 분석한 결과, 먼저 박자에서는 2/4박자 악곡의 비중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4/4, 6/8,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2/2, 3/8, 6/4, 4/8박자나 변박자의 악곡이 일부 있었으나,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조성에서는 독특한 특징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전체 악곡이 모두 ‘장음계(Major Scale)’에 해당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다장조와 바장조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사장조까지 합쳐 세 조성의 악곡 비중이 87.3%에 달하였다. 악곡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16마디 이하의 길이를 가진 악곡이 전체의 93.3%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4마디씩 4단 형태로 제시된 16마디 길이의 악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음역을 살폈을 때는 1옥타브 이내의 악곡과 그 이상의 악곡이 절반 정도씩의 비중을 보였으나, 한 악곡 내에서 처음에서 고음까지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다루고 있는 음역의 위치가 고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서는 노래 부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악곡들도 있었다. 노래 부르는 형태는 대체로 단선율 멜로디를 부르는 제창이 82.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외에 매우 적은 비중이긴 하였으나 돌림노래, 부분 2부 합창, 2부 합창 등 악곡에서 성부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곡들도 있었다.

음악적 측면의 분석 과정에서 오늘날의 교과서와 비교되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 몇 개의 악곡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5> Analysis of the musical elements of songs in *Ch'odŭng Noraech'aek*

Musical elements		Number of songs	Proportion
Time	2/2	1	0.7%
	2/4	56	41.8%
	3/4	15	11.2%
	3/8	1	0.7%
	4/4	35	26.1%
	6/4	1	0.7%
	4/8	1	0.7%
	6/8	22	16.4%
	Irregular time	2	1.5%
Scale	A major	1	0.7%
	Bb major	5	3.7%
	C major	43	32.1%
	D major	9	6.7%
	Eb major	2	1.5%
	F major	44	32.8%
	G major	30	22.4%
Lenth of song	8 measure	26	19.4%
	~ 12 measure	30	22.4%
	~ 16 measure	69	51.5%
	~ 20 measure	2	1.5%
	~ 24 measure	5	3.7%
	26 measure	2	1.5%
Musical range	About 1 octave	65	48.5%
	Over 1 octave	69	51.5%
Performance types	Unison	111	82.8%
	Troll	4	3%
	2 part-chorus	4	3%
	Chorus	15	11.2%

[Figure 5]는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음계’라는 노래이다. 노래 제목과 노랫말을 통해 음계 내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이름을 익히기 위한 곡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오늘날 교과서에서 이와 같이 음계를 학습하기 위한 악곡은 다장조의 곡인 경우가 많은데, 독특하게도 이 곡은 라장조의 조성을 띠고 있다.

음 계

Eumgye

[Figure 5] Score of Eumgye

(Source: *Ch'odŭng Noraech'æk* for 5th graders, p.8, 1948.4.27.)

한편, [Figure 6], [Figure 7]과 같이 같은 선율에 다른 노랫말이 붙어있어 다른 악곡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나 비

Nabi

[Figure 6] Score of Nabi

(Source: *Ch'odŭng Noraech'æk* for 3-4th graders, pp.5-6 1946.8.3.)

노를 제어라

Noleul Jeouola



[Figure 7] Score of Noleul Jeoeola

(Source: *Ch'odŭng Noraech'aek* for 4th graders, p.21, 1948.4.27.)

[Figure 6]과 [Figure 7]을 살펴보면, 조성과 노랫말, 노래 부르는 형태는 다르게 제시되어 있으나 주된 멜로디는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악곡 모두 독일 민요의 선율에 노랫말을 붙여 만든 것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초등 노래책』에 수록된 악곡 중에는 이와 같이 외국 민요의 선율에 우리 말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이 다수 발견되었다.

음악 요소를 중심으로 한 악곡 분석 결과, 오늘날의 교과서 악곡과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내용 제시나 엄밀성, 학년 간의 위계성의 측면에서는 오늘날의 교과서 악곡이나 활동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악곡의 길이, 음역, 가창 형태의 제시 방식과 순서 등의 큰 흐름에서 교과서 제재곡을 다루는 방식은 오늘날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었다. 다만 음악 유형 분석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국악에 관한 부분은 음악 요소의 분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음악 요소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부 요소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악곡들만이 제시되었다는 점(장음계 악곡들만 제시) 등은 미흡한 점으로 보였다. 이는 미군정기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편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학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하지 못하였고, 교과서가 단시간 내에 개발되어야 했으며, 일제강점 종료 직후의 시기에 교과서의 제재곡으로 포함시킬 만한 악곡 베이스가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차 교육과정 개발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시기인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살피기 위해 당시의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초등 노래책』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1945년 9월과 10월,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학교교육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음악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교과목명과 학년별 주당 시수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이 제시되었으며 교과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미군정 초기 학교 음악교육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군정기 초등학교에서 활용된 국정 음악 교과서인 『초등 노래책』의 제재곡 현황, 악곡의 주제, 음악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초등 노래책』은 교과서로 활용되었지만 교과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교과서와 같이 악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제시되는 형태가 아닌, 가창을 위한 악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과서별로는 18~20여 곡의 악곡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제재곡의 주제는 크게 ‘주변 세계에 대한 관찰’, ‘나라 사랑의 마음’, ‘어린이로서의 생활’, ‘주변의 인물’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음악적 특징을 음악 유형과 음악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제재곡의 음악 유형은 모두 서양 음악 어법을 기반으로 한 ‘창작동요’에 해당하였으며 우리 전통음악으로서의 전래동요, 민요 등의 국악곡의 수록은 미흡하였고, 2/4박자, 장음계, 16마디의 1옥타브 이내의 제창 형태의 악곡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강점 종료 직후 미군정기의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국가 수준의 음악 교육과정이 체계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음악 교과 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음악 교과서 개발을 위한 악곡 베이스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다양한 제재곡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위하여 학년별 음악 교과서를 단기간에 개발하여 학교 음악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깊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총론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 역량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국가 수준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학년군별로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군 9종, 5~6학년군 8종의 음악 교과서가 개발되어 총 34권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방법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이를 바탕으로 교사 역량을 발휘한 교육과정 중심의 재구성

수업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이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우리나라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근현대 학교 음악교육의 과도기적 시기로서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초등 음악교육의 상황과 내용을 『초등 노래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앞으로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뿌리와 발전 과정과 내용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 학교 음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Choi, E. K. (2013).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song and poetry contained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Focused on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 the third national curriculum period-. *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14, 317-355.
- _____. (2014). A study on canonizing of children's songs and poems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Focused on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syllabus period. *Korean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45, 459-488.
- _____. (2015) *A study on canonizing of Korean children's songs and poems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 Han, Y. H. (1988). *The history of Korean children's songs*. Seoul: Sekwang Music Publishing Company.
- Kim, C. I. (2011). *A study on Korea music education after 1945-A comparion of music curriculums between Korea and Japan-*. Master thesis, Yong-in University.
- Kim, G. B. (2001). *The research of the music education during liberation-period*. Master thesis, Mokwon University.
- Kim, J. M. (2002).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textbook of musical education during the era of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1948)*.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M. S. (2011).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music textbook.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3), 109-125.
- Kim, S. K. (2009). A study on the reception of children's song in 1920~30s focused on the national textbook of music.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 Education*, 40, 361-402.
- Kim, Y. I. (2008). The education policy of USAMGIK and Seoul education. *Seoul and History*, 71, 135-185.
- Kook, S. H. (2014). A study of reopening the schools in the early stag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36(2), 1-29.
- Kwon, H. K. (2014). Research on the music educatio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53, 5-36.
- _____. (2016). Research on music education material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Focusing on the third volume of th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for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57, 109-143.
- Lee, K. S., Kim, C. M., & Min, K. C. (2002). *100 years of western music in Korea*. Seoul: Hyeonamsa.
- Lee, Y. K. (2000). A new understanding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earch for a 'social historical' approach.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35, 2-36.
- Lee, Y. R.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music textbooks, 'music textbook'(Daegun secondary school, Daegu) and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Dae-Sang(an Korean acronym for the Daegu public commercial secondary school), Daegu), published during the post-libera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2), 139-173.
- Lee, Y. S. (1985). *100 Years of western music in Korea*. Seoul: Eumakchoonchoosa.
- Maeilsinbo (1945a).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directs new education policy angle. Newspaper dated September 18, 1945.
- _____. (1945b).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decides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y. Newspaper dated September 22, 1945.
- Ministry of Education (2021). *The main points of the general outline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 KICE (2022).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February 1, 2022, from <http://ncic.re.kr>
- Moon, K. S. (2014). An investigation on Korean music education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1945~1948. *Korean Journal of Research*

- in Music Education*, 43(3), 21-46.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22). Database of Korean history. February 1, 2022, <http://db.history.go.kr>
- Oh, C. S. (1964). *History of Korean new education*. Seoul: Hyundaegyoyugchongseo.
- Park, J. H., & Yang, S. Y. (2018). The development of a textbook model for enhancing the music competency i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105-125.
- Shin, K. H. (2004). A study on the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the U. S.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e Journal of Education*, 23, 127-143.
- _____ (2005). A study on the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the Period of an outline program of instru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25(1), 3-24.
- Song, S. R. (2019). A study on the status and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roadcasting in the U.S. military era.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63, 55-120.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February 1, 2022, <http://encykorea.aks.ac.kr>
- Yoo, B. H. (1992).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curriculum*. Seoul: Gyohagyeongusa.
- Zhang, E. J. (2021). The music book of liberation space: Explo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music book our song. *Journal of Korean Oral Literature*, 60, 387-410.
- Department of Education, USAMGIK (1946a). *Ch'odŭng Noraech'aek(elementary songbook) grades 3-4*, Seoul: Chosun Books Co., Ltd.
- _____ (1946b). *Ch'odŭng Noraech'aek(elementary songbook) grades 5-6*, Seoul: Chosun Books Co., Ltd.
- Department of Education (1948a). *Ch'odŭng Noraech'aek(elementary school music) for 1st graders*, Seoul: Chosun Educational Books Co., Ltd.
- _____ (1948b). *Ch'odŭng Noraech'aek(elementary school music) for 2nd graders*, Seoul: Chosun Educational Books Co., Ltd.
- _____ (1948c). *Ch'odŭng Noraech'aek(elementary school music) for 3rd graders*, Seoul: Chosun Educational Books Co., Ltd.
- _____ (1948d). *Ch'odŭng Noraech'aek(elementary school music) for 4th graders*, Seoul: Chosun Educational Books Co., Ltd.
- _____ (1948e). *Ch'odŭng Noraech'aek(elementary school music) for 5th graders*, Seoul: Chosun Educational Books Co., Ltd.